



정교회주보

제2504호

2024.12.22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키프로스의 트로오도스 산맥에 자리 잡은 키코스 수도원(사진)은 키프로스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수도원이다. 11세기에 세워졌으며, 수도원 설립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비잔틴 궁전에서 옮겨진 성모님 성상은 수많은 신자가 방문할 정도로 유명하다. 아름다운 벽화와 장식, 성물을 갖춘 박물관과 방대한 사본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다.



성탄 대축일 전 주일
(아담부터 요셉까지
의로운 선조들과 예언자들)
성 아나스타시아 대순교자
(제1조 • 조과 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81
 - 성탄절 전 찬양송 208
 - 성당 찬양송
 - 성탄절 전 시가송 208
 - 사도경 : 히브리 11,9~10; 32~40 ... 208
 - 복음경 : 마태오 1,1~25 209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세상에 오시는 주님

우 대한 예언자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에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라는 예언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말대로 찬 바람이 부는 어느 고요한 밤에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 한 마구간에서 동정녀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아들이 되도다.”

이처럼 만물의 하느님이시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떠들썩하지 않고 조용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사건을 맞아들이기 위해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성서의 메아리'[정교회출판사] 중에서

2024년 성탄절 메시지

주님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약 2024년 전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하늘을 밀어 제치시고 내려오셨다”(시편 18,9)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신조’ 3조에서 고백하듯, 하느님의 아들이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께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시간을 초월하여 태어나십니다. 바로 ‘오늘’도 태어나십니다! “오늘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시는” 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영적인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영혼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항상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느님이자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렬한 사랑꾼’(시나이의 성 요한)으로서 우리 각 개인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저 문밖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이의 마음속에 태어나지 않으시는데, 이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주신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달린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의 마음속에 태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며 겸손이라는 향기로운 꽃을 가꾸지 않는 이의 마음속에 태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라는 거룩한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고집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르는 이의 마음속에 태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쟁, 폭력, 불평등, 인종차별, 사회적 불의, 환경 파괴를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지지하는 이의 마음속에 태어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와 희생적인 사랑과 겸손과 회개로, 또 우리 시대의 사회 문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합시다. 그러면 하느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도 ‘신화(神化)’할 수 있을 것입니다(성 아타나시오스). 우리 이웃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시다. 그리하여 이웃들에게 “오늘 밤 구세주께서 나셨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루가 2,10-11).

이렇게 하면 우리도 평생 하느님의 성육신을 찬양하며,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구원!’”이라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루가 2,13-14 참조).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귀중한 성직자들과 협력자들을 대표하여, 여러분 모두 축복된 성탄절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임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이자 일본의 엑사르호스

하느님과 동방박사들

바실리오스 바코야니스 수도사제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복음서는 우리에게 세 명의 동방박사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으며, 단지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마태오 2,1)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박사들이 세 명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기이신 그리스도께 그들이 바친 선물이 세 가지(황금, 유향, 몰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으며, 다만 ‘동방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어떤 한 나라에서 왔는데, 아마도 페르시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곳은 유대 지방으로부터 약 3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당시 상황으로 봐서 석달 정도는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상류계급*에 속하는 세 사람이 어떤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한 단 한 가지 목적만으로 이토록 먼 거리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을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오 2,2)

당시에는 왕을 방문하여 경배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방박사들은 화려한 임금의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직 자신이 왕

이라고 밝히지도 않은 한 아기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경배하는 것에 과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당대에 가장 선도적인 과학자였던 동방박사들은 한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뒤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증언).

그들이 아기에게 바친 선물은 참으로 하느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향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바쳤던 것이니, 그들은 그 아기를 하느님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또 황금은 왕에게 바쳤던 것이니, 그 아기를 왕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은 이에게 몰약을 발랐는데, 이로써 그 아기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 장사지내게 될 것임을 예견한 것입니다.

“오늘 하느님이 별을 통해 박사들을 이끌어 아기에게 경배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 아기의 삼 일간 장사지냄을 예언한 것이니라”라고 성탄 다음날의 성가에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본래 동방박사를 가리키는 단어 마기(Magi, 단수는 Magus)는 기원전 8-6세기에 이란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메디아 왕국 기원(起源)의 사제계급(司祭階級)을 가리킨다.



스테파노스 황경수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27일(금) 축일을 맞이하는 스테파노스 황경수 신부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셔서 주님의 양 떼를 잘 이끌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2월 27일(금)
성 스테파노스 첫 순교 대보제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알림

- 부산 성당 유아 세례성사
지난 14일(토), 마리아 심수아 유아의 세례성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과 마음 건강히 잘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축일예배 및 세례성사
축일을 맞이하여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요한 신부 집전으로 14일(토)에는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예식이, 주일(15일)에는 조과, 성찬예배, 세례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대만과 설교에서 디오니시오스 성인의 용서의 미덕이 강조되었고, 세례성사로 디오니시오스 김성동, 세라핌 계은광(중국인) 예비신자가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일을 준비하고 참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신자 총회 공고

각 성당의 2025회계년도 정기 신자 총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결산과 새해 예산, 영적 사업,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신자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1월 5일(주일) - 서울 성당

1월 12일(주일) - 부산, 인천, 전주, 춘천, 울산 성당

성탄절, 신년, 신현 축일 예배 안내

12월 24일(화)

오전 9:00	성탄절 대시과 (1시과, 3시과, 6시과)
오후 5:00	성탄절 대시과 (9시과) 성탄 대축일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12월 25일(수)

오전 9:00	성탄 대축일 조과
오전 10:0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오후 12:00	성탄절 행사, 사랑의 오찬

2025년 1월 1일(수)

오전 9:00	축일 조과
오전 10:00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신년 대영광식

1월 3일(금)

오전 9:00	신현 축일 대시과 (1시과, 3시과, 6시과)
오후 5:00	신현 축일 대시과 (9시과)

1월 5일(주일)

오전 8:45	주일 조과
오전 10:0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오전 11:30	신현 축일 대성수식

1월 6일(월)

오전 9:00	신현 축일 조과
오전 10:00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지역 성당별 자세한 시간은 해당 성당에 문의 바랍니다.)